

일주문



생명나눔실천본부, KBS 나눔더하기대축제 참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4월 14-17일 'KBS 나눔더하기 대축제'에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모집 및 홍보캠페인을 펼친다.



만공 스님 탄생 140주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4월 9일 만공 스님 탄생 140주년 기념 대례를 봉행했다.



법왕사 관음보살 점안식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17일 천수천안관음보살 점안식을 복지관 3층 만보보전에서 봉행한다. (053)766-3747



신임 법규위원장 무상 스님 무상 스님은 4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법규위원회 회의에서 신임 법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청도 유등제 개막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광 스님은 4월 15-19일 청도 청도전 파랑새다리에서 제5회 청도유등제를 개최한다. (054)372-3876



월인사 창립 10주년 수계법회 대구 월인사 주지 해관 스님은 4월 14일 광덕사 회주 해인 스님을 모시고 창립 창립 10주년 기념 수계법회 및 영가전도제 대법회를 봉행한다. (053)767-3971



계호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기부금 전달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4월 7일 아름다운동행에 진행하는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를 통해 모은 330여 만원 및 저금통 43개를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인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 현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 4월 7일 임명됐다.

지현 스님은 범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보각사에서 세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범어사에서 소천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영주장애인복지관장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봉화 청량사 주지와 12~15대 중앙총회의원, 포교원 신도총재위원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간화선 연구 박차 가하겠다”

초대 종학연구소장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 호 스님



“조계종 종지, 종통, 교단정립과 형성, 소의경전, 수행문화 및 수행법, 역대 선사 등에 대한 검토와 경전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이 선(禪)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인 만큼 선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동국대 초대 종학연구소장에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 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종학연구소는 불교문화연구원, 역경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

소와 함께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이 통합 관리하는 연구소(원)중에 한 곳으로 5월 26일 개소한다.

초대 소장인 종 호 스님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국선 담론’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종학연구소는 동국대학교 계산원에 위치하며, 현재 연구원을 채용 중에 있다. 종학연구소는 동국대의 건학 주체인 조계종의 선사상을 중심으로 간화선 국제학술회의 등 학술 연구를 진행한다.

“조계종은 조사선의 실천정신과 선사상을 신라에 최초로 전한 선승 도의 국사가 종조다. 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삼고, 구법전승(求法傳承)으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조사선종(祖師禪風)으로 전승 돼왔다. 하지만 조계종도들이 모두 선 수행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의 수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종조인 도의 국사는 물론 조계종을 다시 연 중흥조(中興祖)인 보조 지눌 국사와

정통 선맥을 계승한 중흥조(中興祖)인 고려 말 태고 보우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조계종 조도의 국사를 기리는 의미, 정체성, 역사적 위상 정립, 정체성 정립을 통한 선종 진작, 수행 문화의 저변 확보에 대한 연구 등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겠다.”

종학연구소에서는 선과 불교학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도 진행된다. 종 호 스님은 “선과 교학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한국 선학(禪學)과 선사상 이론과 수행적인 측면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 호 스님은 첫 사업으로 한국 선사상의 이론과 교단사와 선사상에 대한 지점의 내용을 담은 내용을 3권에 걸쳐 집성할 계획이다. 한국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분적인 연구만 그친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한국 선을 연구하고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 계획이다.

종 호 스님은 “종학연구소는 당분간은 선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다

지고 연구소로서 규격과 내실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종단의 종책적인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검토 및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리학·인지과학·뇌과학·교육학 등 학제(學際)간 연구는 물론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회의도 종학연구소에서 진행된다. 종 호 스님은 “올해 국제학술회의는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주제로 국내 불교학자 6명, 해외 불교학자 9명이 준비 중에 있으며 작년과는 다른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조계종이지만 염불, 절수행, 간경 등 다양한 수행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삼장에 기반을 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뒷받침이 이뤄질 때 종단은 물론 조계종의 신뢰는 물론 정체성도 확실해질 수 있다. 주장이나 의견들이 무의미한 소용돌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연 기자

종 호 스님은...

- 1971. 해인사 출가
- 1972. 사미계 수지 (계사 : 고암 스님)
- 1974. 해인승가대학(해인강원) 대교과 졸업
- 1986. 동국대 선학과 졸업
- 1988. 비구계 수지 (계사 : 지운 스님)
- 1994.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 1999. 동국대 선학과 전임강사
- 2003. 미국 Stony Brook University 방문교수
- 동국대 선학과 부교수·기숙사 관장·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 한국불교학회·불교학연구회 이사
- 2006-2008 동국대 정각원장 등 역임

“지역갈등·빈부격차 해결에 주력”

육수종합사회복지관 상 덕 스님 인터뷰

“13년간 난관도 많았지만 부처님의 가호와 좋은 인연의 스님들과 후원자, 봉사자 여러분이 있어 오늘의 복지역사 답을 짚어 올 수 있었습니다.”

육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상 덕 스님은 개관 13주년을 맞아 “열악한 복지 환경 속에 터를 잡은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동동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육수동 지역이 가장 많으며, 노인과 보육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상 덕 스님은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이 이뤄지도록 어르신들 돌보는 데이케어센터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해결을 복지관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로 인



식하고 있었다.

상 덕 스님은 “성동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실시해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 내 청소년 비행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 자원을 연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관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비장애아동 통합시설인 부설 좋은 벗방과후교실을 통해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애아동들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관은 2010년 7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육수재가노인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에 나선다.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이후 13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육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 덕 스님은 “주민들은 문화 편의 시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성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각 계층에 맞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과 가족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복지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관, 민간중심의 행보를 지향하는 전문 복지전담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을 기념한 행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5일 육수역 광장에서 육수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02)2282-1100 이나은 기자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선출한다

공동대표 도법, 원택, 현웅, 세영 스님 종 호선

수경 스님이 대표에서 물러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공동대표 선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불교환경연대는 4월 13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회관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대표 4인 중 상임대표를 호선할 예정이다. 공동대표로는 사전

에 집행위원회에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원택(백련암 감원), 현웅(조계종 교육원장), 세영(신북사 주지) 스님 등 4인이 추천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임원 선출 후 2010년 사업보고와 201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인준을 받는다.

박기범 기자

제7회 인천수륙재 봉행

인천 약사사, 1000여 대중 운집

인천시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 수륙재보존회는 4월 5일 화엄종 총무원 인천 약사사(주지 화응)에서 제7회 인천수륙재를 봉행했다. 천안함 46용사 전사1주기 추모 위령제와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성공기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일초 스님을 비롯해 원경 스님, 기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수륙재에 동참했다. 노덕환 기자



곤지암 우리절

특별천일지장기도



우리 모두, 불보살님의 크나크신 가호에 흠뻑 젖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기도기간 : 2011년 6월 19일 ~ 2014년 3월 16일 (1002일간)
- ▶기도시간 : 새벽기도 04:00 ~ 07:00
사시기도 09:00 ~ 12:00
저녁기도 16:00 ~ 19:00
- ▶기도동참 : 백오십만원 이상 (3년간 자동이체 분납 가능)
농협 : 221043-51-030588 이진균

특별천일지장기도에 동참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드립니다

- ▷ 천도재를 무료로 지내드립니다. (향, 화, 축 공양은 별도)
- ▷ 한 가족 중 두 분. 3년간 인등을 밝혀 드립니다.

※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 불전은 일본대지진피해 성금으로 보시합니다



우리절오층석탑(경기도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지장보살님

우리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삼부다라니 염송법회

문의접수 : 동봉 (스님 : 031-763-4674) / 영허 (법사 : 010-5329-8477, 031-763-8477)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리 전화주시면 우리절 ~ 곤지암터미널 구간을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리리 178번지
언제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락처 영허법사.